

올 추경 · 내년 예산안 심의 · 의결

도의회 예결위, 전북도 7조530억원 · 교육청 3조4691억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추경예산안을 ·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도에서 제출한 7조53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과 6조7,70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3조4,691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3조6,15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 ·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8차례 걸친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 창출, 고용위기 극복, 미세먼지, 폭염 대책 및 혁신도시 약취제거, 새만금개발의 가속화, 수요맞춤 복지정책 확대 등 현안 사업 중점 추

진 및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와 학교안전, 기초 학력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심사결과 전북도 2019년도 예산안 총 7조530억원 중 '섬진강댐 침수방지시설 13억원' 등 총 41건 37억7,600만원을 삭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안 총 3조4,691억원 중 '초 · 중등 교육과정 운영 중 멘토링운영 사업 4,000만원 등 42건 173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2018년도 추경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 · 의결 사항으로는 내년 예산에 대폭 증액된 혁신도시 약취제거관련 예산 중 축산시

설민간 감시단 활동지원(600만원) 및 김제축산발집지역 약취정밀조사 사업(8억원) 삭감, 2023세계잼버리대회 홍보 예산 중 디지털 영상 홍보관 설치 사업 2건 8,000만원은 다른 홍보예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삭감했다.

또한, 섬진강댐 침수방지시설 사업 13억 원은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삭감했다.

최근 고용위기에 따른 일자리 관련 사업, 78건 2,664억원, 군산 산업 고용 위기지역 지원예산, 19건에 229억원, 정부 정책에 따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24건 195억원 등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초미세먼지 등 교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공기정화장치 보급 사업(55억원)에 대해서는 시범설치 후 효과성 검토 후 확

대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20억 원을 삭감했다.

교육청 심사시 집행에 문제점을 지적받은 해외연수비와 관련해서는 '학습연구연수 특별연수 해외교육 체험경비(1억6,500만원)' 전액삭감을 포함한 7개 사업에 대해 요구액 11억4,0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을 삭감했다.

김대오(익산)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내년도는 민선7기 도정 핵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다"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민주 "선거제도 개혁 내년 1월 중 합의할 것"

윤호중 사무총장 "2월 임시국회서 최종 의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 정개특위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총괄하는 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최고위가 열리기 직전에 비공개 최고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결정했다"며 "민주당은 그간 여야간 논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 5당 합의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 새로 구성된 한국당 원내지도부와도 적극 협의할 계획임을 밝힌다"고도 했다. /뉴스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야기 하고 있다.

당정청, 내년 예산 조기집행 합의... '역대 최고 수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내년 예산 조기집행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 직후 배포한 브리핑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는 내년도 경기호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맞춤형 생활 SOC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분야로 선정해 전년 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은 이동수당 확대, 어르신 ·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의 삶과 직접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당정청은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방위적 경제협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 · 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했다.

당정청은 주요 법안 처리 현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민주당에 유치원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 민생 · 경제법안과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이 필요한 세출연계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시급한 중점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당정청은 내년도 예산안과 중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은 "당정청은 내년도 예산을 서민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 자, 경제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평화와 번영의 미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예산을 통해 다함께 살자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뉴스

완주산단에 전북 첫 수소충전소 내년 설치

민주당 안호영 의원 국비 15억원 최종 확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은 2019년도 국가 예산 중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소 충전소 보급을 위한 국비 15억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완주군에 설치될 수소충전소는 전



북 1호로, 총 사업비는 30억원 (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이다.

또한 위치로는 완주산단 내 현대차 전주공장 인화관 옆 370평 부지가 거론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정읍 · 고창 생활안전 등 SOC 사업 추진 탄력

평화당 유성엽 의원 특교세 19억5000만원

민주당 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 · 고창)은 지난 11일 정읍 · 고창지역에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9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정읍 정주교 노후위험 교량 정비 3억원 △정읍 재난 예 · 경보시스템(자동차용 성통보) 설치 4억원 △고창 공산저수지 둘레길 조성 9억원 △고창 맞춤형 경보발령을 위한 적설계 설치사업 3억5,000만원 등이다.

정읍시 시가동에 위치한 정주교는 노후화에 따라 교량 주요 부분의 손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번 특교세 확보로 교량 개 · 보수사업 추진에 탄



력을 받게 돼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창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갯벌 · 운곡 담사르습지와 연계하여 인근 공산저수지(고창군 심원면 공산리) 일원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 둘레길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을 내방하는 관광객에게 고창군의 우수한 생태 체험 기회 및 지역 주민에게는 편익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정읍 · 고창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